

갈등치유와 원불교의 종교교육*

조성훈** · 고시용***

원광대학교

【요약】

본고는 원불교 사상에 입각하여 갈등의 원인을 분석·진단하고 갈등치유의 원리를 규명하며 갈등치유의 교육적 사례를 연구하여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갈등은 ①하고자 하는 마음, ②시비이해의 충돌, ③강·약의 대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또한 갈등의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되며 각 원인에 상응하는 치유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욕심을 다스리는 수양력이다. 염불, 좌선과 경계를 대할 때 마음을 멈추는 공부는 갈등 대처에 도움을 준다. 둘째, 모두가 고귀한 존재라는 자세로 시비이해를 분석하는 연구력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시비이해를 바르게 보면 올바른 선택이 가능해져 갈등치유로 나아갈 수 있다. 셋째, 강자와 약자가 함께 향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약자가 강자에 대항만 한다면 약육강식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갈 때 강·약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

주제어: 원불교, 종교교육, 갈등, 치유, 욕심, 시비이해, 마음공부, 처치불상, 강약,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I. 서론

사람은 누구나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갈등치유는 쉽지 않다. OECD 국가 중 13년째 자살률 1위인 한국의 현실은¹⁾ 개인적 노력만으로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08).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제1저자. deoksang@yahoo.com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kwgksy@wku.ac.kr

1) “한경닷컴”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1308361> (2018.5.30. 검색)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갈등 문제에 대한 원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원불교에서는 갈등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에는 다양한 개성의 사람들이 있기에 갈등의 원인 역시 다양할 것이다. 원불교 경전인 『정전』, 『대중경』, 『정산중사법어』에는 ‘갈등’이라는 표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립·반목·상충·충돌·싸움·전쟁’ 등의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 양상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원불교에서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듯이 갈등의 치유는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II장에서는 갈등과 관련된 법문을 근간으로 원불교에서 보는 갈등의 원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 시비이해의 충돌, 강·약의 대립의 세 가지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III장에서는 갈등치유의 원리와 방법으로 욕심을 다스리는 수양력, 시비이해를 분석하는 연구력, 강자·약자 상생의 사회구조를 제시함으로써 갈등치유의 실재를 구명해보기로 한다.

II. 원불교의 갈등인식

1. 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이든 다른 동물이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欲] 마음[心]’은 문자 그대로 보면 ‘욕심(欲心)’이다. 욕심은 사전적으로 “어떠한 것들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²⁾이라고 정의되는데, 본고에서는 ‘욕심’을 ‘바램(wish)’, ‘욕구(needs)’, ‘탐욕(greed)’ 등을 포괄하는 ‘하고자 하는 마음(desire)’으로 사용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 견물생심(見物生心)으로 욕심을 낼만한 경계나 상황이 더 많아졌다.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 상품까지도 손쉽게 살 수 있고 집까지 배달해준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쇼핑 중독과 같은 현대사회만의 독특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박중빈, 1891~1943)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과학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는 데 비해서 물질을 선용할 정신의 힘이 미약하여 물질의 노예

2) “다음 한국어사전” <http://dic.daum.net> (2018.5.30. ‘갈등’ 검색)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³⁾ 즉 물질문명의 발달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태산은 욕심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고, 작은 욕심을 돌려 큰 서원으로 키우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⁴⁾ 따라서 소태산은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도 중립의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현대 사회에서 욕심의 지나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소태산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갈등의 요소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태산은 마음의 병으로 삼독심(三毒心, 貪心·瞋心·痴心)을 언급하기도 했고,⁵⁾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 세상이 겪고 있는 돈의 병, 원망의 병, 의뢰의 병,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익심이 없는 병을 언급하는 등 갈등의 원인을 욕심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태산은 아래와 같이 갈등의 원인으로 욕심을 강조했다.

「유정물(有情物)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엄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 신망도 하며, 번민 망상과 분심 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 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나니,」⁶⁾

욕심이 증폭되어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등 욕심은 삼독심의 증착된 마음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물질적 풍요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자극은 인간의 욕심을 강화하고 이렇게 강화된 욕심은 무한경쟁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 즉 물질문명이 발달하는 시대라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고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3) 『정전』, 제1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4) 『대중경』 제3 수행품 36장.

5) “삼계의 지옥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먼저 삼독심을 항복받아야 한다.” 『대중경선외록』 19. 요언법훈장 8절; 『정전』, 제3 수행편, 제11장 계문.

6)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1절 정신수양, 2. 정신수양의 목적.

7) 장진영, 「마음병의 세 가지 유형 - 무지·욕심·습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4집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69쪽.

2. 시비이해의 충돌

사람은 가치를 판단한다.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등으로 구분을 짓는 행위는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인간계와 자연계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사람은 의미와 가치를 통해 인류 문명을 형성해 왔다.⁸⁾ 소태산은 이러한 가치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시비이해’로 표현했다.

「사(事)라 함은 인간의 시비이해(是非利害)를 이름이요, 이(理)라 함은 곧 천조(天造)의 대소유무(大小有無)를 이름이니, ~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써 건설되고 시비이해의 일로써 운전해 가나니,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느니라.」⁹⁾

위에서 “세상은 시비이해의 일로 운전해 간다.”라는 표현은 흥미롭다. 사람은 시비이해를 판단하면서 살아가는데, 시비이해의 판단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세상은 한 없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세상은 시비이해의 일로 운전해 간다.”라는 표현에는 시비이해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군상이 담겨져 있다.

왜 시비이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까?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의 소설 『레미제라블』에는 시비와 이해가 어떻게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준다. 주인공인 장발장은 조카들이 굶주리기에 빵을 훔쳤다. 빵을 훔치는 일[범죄]은 ‘시비’의 영역이고 조카를 행복하게 하는 것[생계]은 ‘이해’의 영역이다. 『레미제라블』에서 형사 자베르는 빵을 훔친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보는 ‘시비’ 우선의 가치관을 보였다. 이에 반해 많은 사람들이 장발장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처벌보다는 관심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¹⁰⁾ 이는 ‘이해’의 측면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처럼 ‘시비’를 우선할지, ‘이해’를 우선할지의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갈등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¹¹⁾로 정의되는 것만 보아도 ‘이해관계’가 커다란 갈등요인임을 알 수

8) 이정우, 『개념-뿌리들』 (서울: 그린비, 2016), 534-535쪽.

9)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2절 사리연구.

10) “뉴스통신사” <http://news.joins.com/article/21245563> (2018.5.30. 검색)

1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3.23., 타법 개정].

있다. 지역 이기주의로 불리는 님비(Not in My Backyard)와 뽀피(Please in My Backyard) 현상은 이해관계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3. 강자·약자의 대립

요즈음 대기업 경영자와 일가족들이 ‘을’에 대해 저지른 ‘갑질’이 한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여기서 ‘갑’과 ‘을’을 ‘강자’와 ‘약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구조적으로 누군가는 강자가 되고 누군가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기에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집단 대 집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강·약의 갈등이 쉽게 나타난다. 소태산은 사회·국가·세계에서 생기는 강·약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진단하였다.

3. 강자·약자의 진화(進化)상 요법

- 1) 강·약의 대지(大旨)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느니라.
- 2)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이타법(自利利他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도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에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타해(自利他害)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¹²⁾

강과 약의 대립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근대사회의 커다란 쟁점이었다. 당시의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약육강식으로 보고 사회현상에 그대로 적용한 이데올

12) 『정전』 제3 수행편 제13장 최초법어.

로기가 되었다.¹³⁾ 강대국은 사회진화론을 약소국 침략과 지배의 원리로 이용했고, 당시 한국사회도 약자로서 고통을 당했다. 소태산이 제시한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강과 약의 갈등은 사회·국가·세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해 왔다. 갑의 횡포, 유전 무죄 무전유죄, 금수저 흙수저 등의 표현은 강과 약이 갈등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보여준다. 강자와 약자가 생기는 사회구조 속에는 남녀갈등, 노소갈등, 세대갈등, 고부갈등, 빈부갈등, 사제갈등, 상하갈등, 지역갈등, 여야갈등, 노사갈등, 남북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2017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사회로 촉발된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은 여자가 남자로부터 성폭력 및 성희롱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약 대립의 사회갈등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III. 갈등치유를 위한 원불교 교육

1. 욕심을 다스리는 수양력

소태산은 「천지만업으로 벌어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自主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¹⁴⁾이라 하여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정신수양을 제시했다. 정신수양을 통해 길러진 정신의 자주력으로 욕심이 일어난 순간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수양의 기본은 염불과 좌선이다. 염불은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에 집중하여 일념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좌선은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두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마저 내려놓아서 사람의 순연한 근본정신을 기르는 방법이다.¹⁵⁾ 소태산은 번뇌가 많으면 염불로써 그 산란한 마음을 대치하고 다음에 좌선으로 원적의 진경에 들 수 있고 낮이나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염불을 권장하고 밤이나 새벽에는 좌선을 권장하는 등 상황에 따라 염불과 좌선을 적절히 운용하도록 했고¹⁶⁾, 동·정(動靜) 간에 수양력(修養

13) 전복희, 「사회진화론의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한국에서의 기능」 『한국정치학회보』, Vol.27 No.1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408-412쪽.

14)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1절 정신수양 2. 정신수양의 목적.

15)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

16) 『정전』 제3 수행편 제3장 염불법.

力) 얻는 빠른 방법의 하나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권장했다.¹⁷⁾

다음으로 정신수양을 일상에 적용한 ‘마음 멈춤’이 있다. 소태산은 「지금 세상은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하므로 심전 계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행복 받을 수 없고 욕심을 행복 받지 못하면 세상은 평화를 보기 어려울지라.¹⁸⁾」라며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마음공부를 언급했다. 특히 욕심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음 멈춤’이다. 혹 ‘마음 멈춤’을 하면 욕심을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는데, ‘마음 멈춤’은 욕심을 행복받는 첫 단계로 욕심에 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욕심을 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불교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을 경계(境界)로 본다. 일상수행의 요법의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는 가르침에 의하면, 경계를 따라 발생하는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릇을 없애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 자성의 혜, 자성의 계를 ‘세우자’라고 제시하고 있다.¹⁹⁾ 경계를 대하여 욕심에 끌려가거나 갈등이 생겨 요란한, 어리석음, 그릇이 나타났을 때 마음 멈춤을 통해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아래의 무시선법(無時禪法)에 잘 나타나 있다.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調熟)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니」²⁰⁾

욕심나는 경계를 만났을 때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즉 ‘마음 멈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욕심 경계를 대하여 ‘마음 멈춤’을 지속하는 것은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힘을 키우는 것으로 원불교의 다양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에서 확인된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케어 마인드(CARE Mind)’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14회기 중 두 번째 회기의 주제가 ‘멈춤’이다. 이때의 ‘멈춤’은 생각 멈추기, 마음 모으기, 명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음이 뜻대로 멈춰지지 않아 겪었던 경험들이 있다면’,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집중했을 때 어

17) 『대종경』 제3 수행품 2장.

18) 『대종경』 제3 수행품 60장.

19) 『정전』 제3 수행편 제11장 일 수행의 요법.

20) 『정전』, 제3 수행편, 제7장 무시선법. 소태산은 무시선법에서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라는 표현을 통해 ‘마음 멈춤’을 언급했다. ‘마음 멈춤’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단 멈추는 것으로 이는 습관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다스려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편 체험이 있었나요?’ 등의 활동과 회화가 포함되었다.²¹⁾ 원불교 훈련기관 중 하나인 삼동원의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알아차린 나’, ‘정신차린 나’를 중시하여 ‘지금 여기 알아차리기’를 통해 ‘업력의 나’에서 ‘알아차린 나’로 돌리는 공부를 하는데²²⁾ 이 프로그램도 ‘마음 멈춤’의 원리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Stop(멈추기), Think(생각하기), Act(실행하기), Review(반조하기)의 네 단계로 단순화한 STAR 마음공부로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Stop’으로 ‘앗! 경계다’를 통해 일단 멈추는 것이다.²³⁾

〈표 1〉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에서 ‘마음 멈춤’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	‘마음 멈춤’에 해당하는 내용
심심풀이 M3	STAR 마음공부 방식에서 ‘Stop’
케어마인드(CARE Mind)	14회기 중 2회기 주제 ‘멈춤’
삼동원 마음공부	지금 여기 알아차리기

〈표 1〉과 같이 ‘마음 멈춤’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며 갈등치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컨대 사람을 죽이려고 순간적으로 칼을 꺼내 들었다가 “내가 어리석은 마음을 내고 있구나.”하고 물러서는 것은 바로 그 순간 그 업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²⁴⁾ 이는 습관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을 자제시키는 마음공부의 방법이다. 즉, ‘마음 멈춤’은 경계를 만났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상황과 나를 분리하여 객관화시켜 상황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틈을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2. 시비이해를 분석하는 연구력

소태산은 「인류가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²⁵⁾ 「우리가 일의 시비이해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근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화하여 전정 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

21) 마음인문학연구소, 『케어마인드』(워크북) (2018), 21-32쪽.

22) 김은진, 『마음공부의 실제』 (고양: 공동체, 2014), 97쪽.

23) 장진영 외 2인, 「마음공부의 사회적 확산 과정 - 심심풀이 M3(meta-mind meditatio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2집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268-269쪽.

24) 김은진, 앞의 책, 20쪽.

25)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3절 작업취사 참조.

요.²⁶⁾라며 시비이해를 모르는 어리석음²⁷⁾이 갈등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치유의 원리와 방법은 시비이해를 대하는 안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원불교 사상에 근거하여 먼저 세 가지 안목을 제시하고 안목을 키우는 방법으로 심신작용 처리건을 통한 마음공부일기를 제시할 것이다.

첫째, 자신의 시비에 집중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뒤에서 타인에 관련된 말을 하는데 남을 헐뜯는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험담을 하는 것이다. 이에 소태산은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아니하느니라.²⁸⁾」고 가르치면서 험담하는 행위를 경계했다. 상대방의 행동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시비를 논하는 것은 험담이 되고 악연의 씨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태산은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히므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피므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느니라.²⁹⁾」며 지혜로울수록 자신의 시비를 밝히는 데 노력한다고 보았다. 또한 「남의 시비를 보아다가 자신의 시비를 밝히는 데 집중하라.³⁰⁾」고 조언하며³⁰⁾ 시비를 바르게 보는 힘은 자기의 시비를 살피는 데에서 찾았다.

둘째, 시비를 밝게 분석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보통 마음씨가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태산은 마음씨가 좋더라도 시비이해를 분명히 나누지 못하면 덕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³¹⁾ 시비이해의 판단을 중시했다. 이는 『최초법어』의 ‘수신의 요법’에 잘 나타나 있다.

- 1)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 2)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회로에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 3)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³²⁾

소태산은 시대를 따라 학문을 준비하고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을 강조했다

26) 『정전』, 제2 교의편, 제4장 삼학, 제2절 사리연구.

27) 『정전』, 제2 교의편, 제5장 팔조, 제2절 사연 사조.

28) 『대중경』, 제4 인도품 35장.

29) 『대중경』, 제4 인도품 36장.

30) 『대중경』, 제13 교단품 3장.

31) 『대중경』, 제4 인도품 3장.

32) 『정전』, 제3 수행편, 제13장 최초법어.

다. 특히 ‘수신의 요법’의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यो”는 삼학 중 사리연구로 계승되었으므로³³⁾ 아래의 사리연구 훈련과목을 통해 시비이해의 안목은 키워나갈 수 있다.

공부인에게 정기(定期)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 훈련 과목으로 염불(念佛)·좌선(坐禪)·경전(經典)·강연(講演)·회화(會話)·의두(疑頭)·성리(性理)·정기일기(定期日記)·상시일기(常時日記)·주의(注意)·조행(操行)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경전·강연·회화·의두·성리·정기 일기는 사리 연구 훈련 과목이요,

경전은 우리의 지정 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강연은 사리 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格)을 갖추어 그 지견을 교환하며 혜두(慧頭)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회화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이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혜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의두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이해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話頭)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밝히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요,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이요,

정기 일기는 당일의 작업 시간 수와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건과 감각(感覺) 감상(感想)을 기재시킴이요,³⁴⁾

『정전』에 제시되어 있는 사리연구 훈련과목은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의 총 6과목으로서 다른 훈련과목에 비해 다양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사리연구 훈련과목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을 믿을 것이요」³⁵⁾처럼 여러 사람을 통해 지혜를 얻거나 대중의 공의³⁶⁾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모두 시비를 나누는 안목을 갖추는 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시대를 따라 학문을 준비해야 한다는 ‘수신의 요법’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3) 고시용, 『원불교 교리 성립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233쪽.

34)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

35) 『정전』, 제3 수행편, 제12장 술성요론.

36) 『정산종사법어』, 제1부 세전, 제5장 사회, 5. 공중의 도.

특히 시비이해를 나누는 데 현대사회에서 알아야 할 것에 법률이 있다. 소태산은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 시비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³⁷⁾라며 삶에서 법률은을 강조했다. 이때의 법률은 도덕과 윤리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지만, 소태산은 ‘현행법’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예컨대 포수가 쏜 총에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한 사건에 대해 소태산은 법령 제도를 따라서 관청에 그 사유를 보고 해야 한다고 보았다.³⁸⁾ 현행법 역시 현실적으로 시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본 것이다.

셋째, 시비를 떠난 자리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시비가 붙다’라고 하면 서로 언쟁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시비가 붙는 경우는 대개 시비를 판단하다가 싸움[갈등]으로 변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시비가 붙는 상황이 발생할까? 이는 사람과 일을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예컨대 ‘시비를 걸다’, ‘시비조로 다그치다’라는 표현만 보아도 ‘시비’를 대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읽혀진다. 시비는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인데 사람을 시비의 대상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했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소태산은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應化身)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處處佛像)이요, 일일이 불공법(事事佛供)」³⁹⁾이라며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법을 언급했다. 모두를 부처님처럼 대하고 일은 불공하듯이 하자라는 취지이다. 사람은 처처불상으로 대하고 일의 시비이해는 사사불공으로 하는 것이다. 부처님으로 대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상대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포함되므로 일의 시비를 나누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비이해의 안목을 키우는 공부에 심신작용처리건의 마음공부일기가 있다. 심신작용 처리건 기재의 목적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는 데 있다.⁴⁰⁾ 이는 상황[경계]을 객관화시켜 시비이해를 바르게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아래의 일기 세 편은 심신작용 처리건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37) 『정전』,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 제4절 법률은.

38) 『대중경』, 제4 인도품 55장.

39) 『정전』, 제3 수행편, 제10장 불공하는 법.

40) 『정전』, 제3 수행편, 제6장 일기법.

금일은 오후에 일기 감정과 염불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니 신발이 없는지라, 온 사방을 다 찾으려 다녔다. 그러나 나의 신발은 없고, 다만 다른 사람 신발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사무는 바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신발을 기다려 시간을 보내고 싶으나 신발 가져오는 사람이 없는지라, 비록 뜰에 신발은 많이 놓였으나 다른 사람 신발이라. 만일 나의 바쁜 사무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가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갑갑증을 당할까 하여 마루에 서있게 되었다.

‘나의 신발은 항상 누가 이다지 신고 가는가?’ 하여 미운 생각이 날 듯 하였다. 나의 한번 생각한 바는 ‘그 사람이 남의 신발인지를 알고 신을 이치가 있으며, 나도 이후에 혹 모르고 남의 신발과 바꿔 신을지도 모르겠다.’ 하여 양해하여지는 머리에 미운 마음 날 듯 하던 것이 없어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

밥을 먹고 또다시 와서 보니 그제사 제 신발이 놓였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신발을 찾아 신고 그 바꿔 신고 간 사람보고 주의하라고 하고 싶으나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 말을 하면 무안히 생각할까 하여 말을 하지 않았다.

이리 저리 평화가 되고, 후일에 나도 혹 남의 신발과 바꿔 신지 말기로 주의하였습니다. ~ 감정: 甲⁴¹⁾

난 일주일 전쯤 화장실 청소를 맡았다. 세면대 쪽이었는데 청소하는 중간중간 아이들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바람에 청소하는데 방해가 되어 청소 시간이 길어졌다. 신경질을 부리며 계속 청소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또 들어오는 것이다. 난 화가 나 그 애에게 큰 소리를 치려는 순간 경계가 생각났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화장실 청소’라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난 내 마음이 수그러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화장실에 들어왔겠지 하는 마음과 함께 난 기분 좋게 화장실 청소를 끝마쳤다. 청소를 끝내고 자리에 앉자 알 수 없는 웃음이 나왔다. 웬지 내가 대견스러워졌다.⁴²⁾

내일 준비물이 있어서 오늘 바느질 용구를 사려고 문방구에 갔다. 바느질 용구가 1,500 원이어서 2,000 원을 아저씨께 드렸다. 그래서 아저씨께서 500 원을 주셨

41) 박길선, 『박길선 일기』, 한진경 엮음,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2), 60-62쪽. 1929년 6월 7일자 심신작 용처리건으로 소태산이 감정했다.

42) 청소년 인성교육사례로 동아여자고등학교 2학년의 마음대조일기 모음집으로 허준수 엮음, 『마음을 살피는 한마디』 (익산: 동남풍, 2002), 71쪽.

다. 그런데 돈이 500원이 아니라 800원이었던 것이다. 나머지 300원을 아저씨께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순간, ‘모처럼 돈 벌었는데, 가져 가자.’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잖아.’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대조를 하였다. 그래서 300원을 아저씨께 갖다 드렸다. 이렇게 한 내가 무척 자랑스럽다.

김: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마음대조하여 돌려 드렸구나. 정말 자랑스럽다.⁴³⁾

첫 번째 일기는 1929년 6월 7일의 심신작용 처리건으로 소태산이 직접 감정했다. 두 번째 일기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화장실 청소’라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 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와 같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이다. 세 번째 일기는 초등학생이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야.”라는 간단한 표현을 활용하여 심신작용을 처리하도록 했다. 세 편의 일기는 심신작용 처리건이 초등학생에서 어른까지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임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심신작용 처리건의 기제는 행동, 마음자세, 당시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비이해’에 대한 안목과 행동을 스스로 강화하는 방법이 된다. 남의 시비가 아닌 자신의 시비를 공부의 대상으로 삼고 시비를 떠난 자리에서 모니터링하여 향후 빠르게 빠른 시비의 분석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첫 번째와 세 번째 일기처럼 심신작용 처리건은 시비이해를 분석하는 정도를 “갑”,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마음대조하여 돌려 드렸구나. 정말 자랑스럽다.”와 같이 지도자의 감정을 통해 공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심신작용 처리건은 심심풀이 M3 프로그램의 ‘메타마음 일기’로도 적용되었는데, 경계에서 일어나는 심신작용을 그대로 기재하도록 하여 일과 이치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을 얻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⁴⁴⁾ 케어마인드의 ‘케어 다이어리’에서는 심신작용처리건의 마음공부일기를 <그림 1>처럼 구조화했다.

43) 박영훈 외 2인, 『선생님 학교가 참 재미있어요』 (익산: 동남풍, 1997), 116쪽. 지도자의 감정은 이텔릭. 이 일기는 영역되어 원불교 영문 홈페이지(www.wonbuddhism.org)에 마음공부 수행으로 소개되었다.

44) 박세훈 외 2인, 「원불교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종교교육학연구』 제50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33쪽.

Activity 활동하기

케어 다이어리 작성하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가장 마음에 걸린 일

그 때 일어난 마음 (생각, 감정)

그 때 나의 선택 (내가 일으킨 마음과 행동)

성찰

〈그림 1〉 케어마인드의 ‘케어 다이어리’⁴⁵⁾

세상은 사람의 일로 운전해 가기 때문에 일의 시비이해에 대한 안목이 중요하다. 원 불교에서는 자신의 시비이해를 잘 살피고, 시비이해를 나눌 때 사실과 허위를 잘 분석할 줄 알며, 사람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비를 볼 줄 아는 안목을 중요시한다. 시비이해의 안목을 키우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심신작용 처리건은 적용대상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다.

3. 강자·약자 상생의 사회구조

세상에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강자와 약자가 만들어진다. 이에 소태산은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을 제시했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약술하면 강대국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회진화론을 약소국 침략과 지배의 원리로 이용했고, 당시 한국

45) 마음인문학연구소, 앞의 책, 15쪽.

사회는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약자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사회진화론과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의 쟁점은 강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있다. 사회진화론의 경우 자연적 불평등은 결코 의식적인 행동으로 바뀔 수 없는 고정된 것으로 보았다.⁴⁶⁾ 이러한 견해는 강자와 약자를 절대적으로 구분하기에 강자가 약자 위에 굴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즉 강자는 강자로만 굴림하고 약자는 강자를 미워하여 서로 간에 원수가 될 수 있다.⁴⁷⁾ 이에 비해 소태산은 모든 것은 음양상승의 이치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⁴⁸⁾ 천지와 세상에든 진·강급이 있고⁴⁹⁾ 사람에게도 진·강급이 있다⁵⁰⁾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강자와 약자는 상대적이며 진급 또는 강급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태산은 근본적인 관계를 은혜로 보았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없이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본질적으로 모두가 은혜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⁵¹⁾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소태산은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은(恩)적 관계를 사회에서 구현하는 방법으로 자력양성(自力養成), 지자본위(智者本位), 타자녀교육(他者女教育), 공도자숭배(公道者崇拜)의 ‘사요(四要)’를 제시했다. 의뢰생활 하는 약자보다는 자력생활 하는 강자가 되자는 것이 자력양성이고, 강자인 지자(智者)에게 배울 줄 아는 자세를 갖추 강자로 성장하자는 것이 지자본위이다. 교육이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하여 서로 강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타자녀교육이고, 강자로서 강자의 역할을 잘 하여 사회·국가·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정신을 본받는 것이 공도자 숭배이다. 이런 점에서 사요는 강자와 약자가 서로 상생으로 나아가서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의 사회구조로 개선하는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사요 실천의 구체적인 예로 타자녀교육을 중심으로 언급하겠다. 원불교에서는 타자녀교육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교육에 일관된 흐름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광복 전후 적극적인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했고, 1980년대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했으며 1998년에 대안교육이 정부로부터 공식화되었을 때 국내최초 대안학교로 인가받아서 대안교육을 실시했다.⁵²⁾ 대안학교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영산성지고등학교의 경우 원불교의 마음공부 원리를 학교 교육에 접목하여 집단

46) 전복희, 앞의 글, 415쪽.

47) 「약자로 강자되난 법문」, 『월말통신』 제1호(1928년 5월) (원불교 정화사, 『원불교교고총간』 제1권 (이리: 원불교 원광사, 1969), 12쪽.

48) 『대중경』, 제5 인과품 2장.

49) 『대중경』, 제6 변의품 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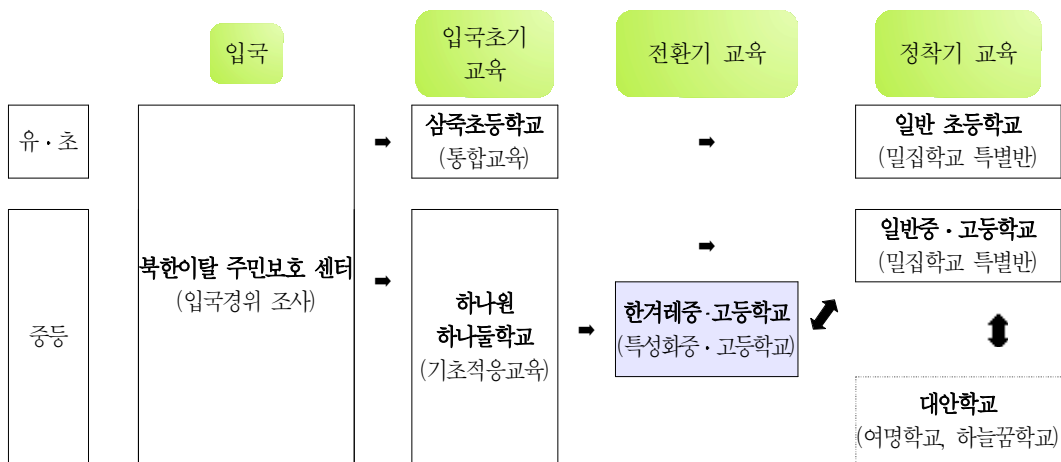
50) 『정전』, 제3 수행편, 제17장 범위등급.

51) 『정전』, 제2 교의편, 제2장 사은.

52) 권동우, 「원불교의 대안학교 - 사회개혁과 소외의 치유를 지향하는 교육관」 『종교교육학연구』 제40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75쪽.

따돌림, 학교폭력 등으로 고통을 받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실천했다.⁵³⁾ 탈북청소년 교육 전문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원불교의 대안교육의 실천을 높게 평가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 3월에 원불교의 학교법인 전인학원에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을 제의하였고, 이에 전인학원은 2006년 3월에 한겨레중·고등학교를 개교했다.⁵⁴⁾

탈북청소년이 한국에 오면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탈북동기와 입국 경위 등을 조사받는다.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3개월가량 교육을 받게 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하나원의 하나둘학교에서 기초 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을 마치고 정착기 학교 전·편입 이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전환기 교육을 받게 된다.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16년 4월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이 2,517명으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교육지원 사업의 중점 과제 중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부분에서 한겨레고등학교의 진로·직업교육 확대가 포함되었다.⁵⁵⁾



〈그림 2〉 탈북청소년 입국 정착 과정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는 탈북학생들이 전환기 교육으로 일반교과, 정서안정, 직업진로, 사회문화적응, 애프터스쿨 등의 과정을 통해 향후 일반학교로 이동하여 원만하

53) 교육인적자원부, 『대안교육 백서 1997-2007』(2007), 40쪽.

54) 원불교100년총람편집위원회, 『원불교100년총람』 3권 (익산: 원불교출판사, 2017), 415-416쪽.

55)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교육부 보도자료 2017.3.23. 배포)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825&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6&s=moe&m=0503&opType=N> (2018.5.30. 검색). 〈그림 2〉는 보도자료의 도표를 보완한 것임.

게 학교생활을 적응하도록 돕는다.⁵⁶⁾ 이와 같은 한겨레학교의 역할은 ‘타자녀교육’의 구체적 실천으로 탈북청소년[약자]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시민[강자]으로 성장토록 돕는 것이다. 이는 인간 존중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강자·약자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구체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평화와 상생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탈북청소년은 통일 시대를 앞두고 남북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중요한 인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갈등의 원인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 시비이해의 관점, 강·약의 사회구조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세 가지 갈등의 원인은 세 가지의 갈등치유의 방법으로 연결된다. 첫째로 염불, 좌선의 정신수양과 ‘마음 멈춤’의 방법, 둘째로 시비이해와 가치 판단의 안목과 심신작용처리건의 마음공부일기, 셋째로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의 실천과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갈등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 가치적 측면, 구조적 측면으로 파악한 점은 갈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갈등치유로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원불교 종교교육적 입장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러나 세 요소가 원불교 사상을 모두 담아냈다고는 볼 수 없고, 세 측면에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 각각의 의미와 구체적 방법, 사례에 대한 구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하고자 하는 마음과 현실의 물질문명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찾는 등 각 측면마다의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갈등의 본질에 대한 깊은 연마는 더욱 실질적인 갈등치유의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은 하나의 요소만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하고 다양한 심리, 정서, 물리적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본고는 그 부분까지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 갈등문제의 진단과 치유에 대한 선행연구의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갈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56) “한겨레중고등학교” <http://han.hs.kr/?act=doc&mcode=331810> (2018.5.30. 검색)

참고문헌

-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법어』.
『대종경 선외록』.
고시용, 『원불교 교리 성립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교육인적자원부, 『대안교육 백서 1997-2007』, 2007.
권동우, 「원불교의 대안학교 - 사회개혁과 소외의 치유를 지향하는 교육관」, 『종교교육학연구』 제40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김도공, 「원불교의 「大小有無」의 논리구조 연구」, 『원불교학』 제2집,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97.
김은진, 『마음공부의 실제』, 고양: 공동체, 2014.
마음인문학연구소, 『케어마인드』(워크북), 2018.
박길선, 『박길선 일기』, 한진경 엮음, 익산: 원불교출판사, 2002.
박영훈 외 2인, 『선생님 학교가 참 재미있어요』, 익산: 동남풍, 1997.
「약자로 강자되난 법문」, 『월말통신』 제1호 (1928년 5월) (원불교정화사, 『원불교교고충간』 제1권, 이리: 원불교원광사, 1969).
원불교100년총람편집위원회, 『원불교100년총람』 3권, 익산: 원불교출판사, 2017.
이정우, 『개념-뿌리들』, 서울: 그린비, 2016.
장진영, 「마음병의 세 가지 유형 - 무지·욕심·습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4집,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장진영 외 2인, 「마음공부의 사회적 확산 과정 - 심심풀이 M3(meta-mind meditatio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2집,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전복희, 「사회진화론의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한국에서의 기능」, 『한국정치학회보』, Vol.27 No.1,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허준수 엮음, 『마음을 살피는 한마디』, 익산: 동남풍, 200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3.23.,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4.22.] [법률 제12278호, 2014.1.21., 일부개정]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교육부 보도자료 2017.3.23. 배포)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0825&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6&s=moe&m=0503&opType=N>

“뉴시스통신사” <http://news.join.com/article/21245563>

“다음 한국어사전” <http://dic.daum.net>

“원불교 영문 홈페이지” <http://www.wonbuddhism.org>

“한겨레중고등학교” <http://han.hs.kr/?act=doc&mcode=331810>

“한경닷컴”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1308361>

원고접수일: 2018년 6월 14일, 심사일: 2018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27일

연구자 소개: 조성훈

- ① 전공: 원불교학 / 소속: 원광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HK 연구교수
- ② 관심영역: 원불교, 마음공부, 인성교육, 명상
- ③ 주요논저: 『마음챙김, 미국을 깨우다』(역서), 『『불교정전』 「일원상」장 성립의 의의』
- ④ E-mail: deoksang@yahoo.com

연구자 소개: 고시용

- ① 전공: 원불교학 / 소속: 원광학교 원불교학과 부교수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종교, 원불교교육, 원불교경전해석
 - ③ 주요논저: 『클릭 원불교』, 『종교(원불교)』, 『한국 종교의 확산전략』, 『원불교 교리 성립사』
 - ④ E-mail: kwgksy@wku.ac.kr
-

Abstract

The Healing of Conflict and the Religious Education in *Won*-Buddhism

Jo, Seong-Hun · Ko, Shi-Yong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the causes of conflict and explaining the principles and educational cases of healing conflict from the perspective of *Won*-Buddhist thought. Conflicts that can occur to anyone are identified in three ways: First, conflicts occur out of a desire to do something; second, conflicts arise due to conflicting perspectives of what is considered right, wrong, beneficial and harmful; third, conflicts are caused by confrontations between the strong and the weak.

Understanding the causes of these conflicts is the beginning of healing conflict, and a method of healing can be suggested according to each cause. The first is the power of cultivation which can manage desire. The practice of pausing when encountering sensory conditions, as well as chanting and seated meditation, help cope in situations of conflict. The second is the power of inquiry into right, wrong, benefit and harm, considering every being as noble. The third is that the strong and the weak should advance together. If the strong repress the weak, or if the weak oppose the strong, our society will be a world where the stronger prey upon the weak. To overcome this, it is important to eliminate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strong and the weak when creating a protected social system.

Key words: *Won-Buddhism, religious education, conflict, healing, desire, the right, wrong, benefit and harm, mind practice, Everywhere a Buddha Image, the Strong and the Weak*